



“피할 수 없는 경쟁이지만 팀 목표는 같다”

제주 GK 오승훈, 윤보상과 선의의 경쟁 최근 4경기 1실점... “0점대 방어율 목표”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에서 최근 4연승을 내달리며 선두를 위협하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베테랑 수문장 오승훈(31)이 ‘철벽 방어’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오승훈은 경남FC와의 2020 K리그 2라운드 홈 경기(28일)를 앞두고 25일 구단을 통해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수비의 마지막 보루다. 내가 무너지면 팀도 무너지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울산 현대에서 뛰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제주 유니폼을 입은 오승훈은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한 아픔을 딛고 올해 K리그2 6경기에서 출전

해 3골만 내주며 초반 승격 도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 수비진도 한층 탄탄해진 가운데 최근 4경기는 단 1실점으로 틀어막아 제주의 연승 행진과 2위(승점 13) 도약에 앞장섰다.

20일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초반 필립의 결정적인 슈팅을 발로 막아내는 등 선방을 펼치며 ‘클린 시트(2-0)’를 기록, 24일 발표된 K리그2 7라운드 베스트11에서 골키퍼 자리를 차지했다.

남기일 제주 감독은 “오승훈은 선방은 물론 안정된 볼 처리, 수비 조율, 빌드업까지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골키퍼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며 “4연승을 질주하며 자신감이 더 붙은 모습이라 기대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한 윤보상과의 ‘내부 경쟁’은 오승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윤보상도 지난해 상주 상무를 포함해 대부분 1부리그에서 뛰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오승훈과의 경쟁 속에 리그 1경기 출전에 그쳤다.

오승훈은 “서로 피할 수 없는 경쟁이지만, 팀의 1부 승격이라는 목표는 같다”면서 “보상과 함께 제주를 단단히 지켜 1부 무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개인 기록으로는 ‘0점대 방어율’을 목표로 밝힌 그는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승훈.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올해 54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취소

도체육회 코로나 예방 차원 9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2021년 대회는 제55회로 개최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취소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수단 및 도민 안전을 우려해 ‘제54회 도민체육대회’를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민체육대회는 당초 4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3월 12일 잠정 연기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취소 결정은 52종목·1만5000명 규모 선수단 및 관중의 방역대책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주도체육회의 설명이다.

도민체육대회는 196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53회 대회가 개최됐다. 개최가 취소된 해는 1967년(집행부 이사진 총사퇴 및 재정문제), 1998년(전국체전 준비사유)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횡수로 통산한다. ‘도민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2021년 대회는 제55회 대회로 개최된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도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9월 개최되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가 결정됐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24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앙토니 마르시알(오른쪽)이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감각적인 침습으로 골키퍼를 속이고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핫한 EPL 4위 싸움... “챔스 티켓 잡아라”

맨유, 세필드 잡아 5위 수성 울버햄프턴·토트넘 추격 중

리버풀의 독주로 우승 레이스 열기는 일찌감치 식어버렸지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4위 싸움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세필드 유나이티드에 3-0 완승을 했다.

골잡이 앙토니 마르시알이 전반 7분과 44분 연속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9분에는 마르커스 래시퍼드와의 이대일 패스에 이은 침습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맨유를 승리로 이끌었다. 맨

유에서 무려 7년 만에 나온 정규리그 헤트트릭이다.

7경기 무패를 달린 맨유는 5위(승점 49·골득실 +17)를 지키며 4위 첼시(승점 51)와의 격차를 승점 2점으로 좁혔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6위에 그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한 맨유로서는 4위 안에 드는 게 과제다.

4위를 노리는 건 이들 두 팀만이 아니다. 신흥 강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도 이날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육상 셋별’ 양예빈 우승

‘육상 셋별’ 양예빈(16·웅남고)이 고교 진학 후 처음 나선 경기에서 무난하게 우승했다. 양예빈은 25일 오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18세 이하 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 결선에서 58초18로 1위를 차지했다.

기록은 다소 아쉬웠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 여자중학생 기록인 55초29에 2초89 느린 기록으로 고교 첫 경기를 끝냈다.

양예빈은 400m에서 지난해 한국 여자 선수 중 두 번째로 빠른 55초29를 찍었다. 55초29는 2019년 한국 여자 400m 전체 2위이자, 역대 11위 기록이기도 하다.

이날 양예빈은 “원하는 기록을 내지 못해 아쉽다. 팬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재(왼쪽)와 임찬울.

연합뉴스

제주 임찬울·전남 김경재 맞트레이드

멀티 플레이 능력에 주목

프로축구 여름 이적시장이 열린 25일 K리그2(2부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가 맞트레이드로 전력을 보강했다.

제주는 수비수 김경재(27)를 영입하고, 대신 측면 공격수 임찬울(26)을 전남으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제주 유니폼을 입은 김경재는 2016년 자유계약으로 전남에 입단해 프로 데뷔했다. 2018~2019년엔 상주 상무에서 뛰며 성장했다. 리그 통산 기록은 55경기 1도움이다.

제주는 중앙 수비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 넘나드는 그의 멀티 플레이 능력에 주목했다.

김경재는 구단을 통해 “현재 부상 재활 중인데, 어서 회복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좋은 선수가 많은 제주에서 묵묵히 동료들의 뒤를 받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리그 최저 득점인 4골에 그친 전남은 한양대 시절 2년 연속 U리그 권역 득점왕 경력을 지닌 임찬울의 합류로 화력 강화를 노린다.

2017년 강원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제주로 옮긴 그는 리그 통산 45경기에서 2골 5도움을 올렸다.

임찬울은 “대학교 때 호흡을 맞춘 김현욱도 전남에 최근 합류했다. 다시 같이 뛰게 돼 기쁘다”면서 “팀이 1부리그로 승격하도록 희생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신간 안내

“아마추어 제주 작가가 쓴 문제의 화제작!”

일요일 없는 달력

- 삶은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꿈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속임수 같았다.
- 의식의 유희가 만들어낸 허무한 변명이었다.
- 말썽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매 순간 최후의 만찬이었다.
- 성수聖수가 앞바다에서 튀어 올랐다.
- 모두가 바다를 꿈꾸는 각자의 소금인형이었다.

출간하자마자
입소문으로만
5천권 판매 돌파!



김 용 각 바람을 안주 삼아 너털웃음을,
그 바람에 실려 보내 기도 하는 어느 어리석은 자...

TEL. 070-7714-1571 Mobile. 010-6686-3030
e메일 hongikpb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ongikpbc
web site www.hongikpbc.com

도서출판 홍익

계좌번호. 농협 351-1104-6746-73